

3 이단(사이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제103회기 이단(사이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이종철
서 기 이역희

1. 조직

- 위 원 장 : 이종철
- 서 기 : 이역희
- 총 무 : 황석산
- 분 과 장 : 조사분과장 박철수
연구분과장 홍재덕
- 전문위원 : (교 수) 정승원 김지호 이병일
(상담소장) 이덕술 신현욱 김건우 고광종 주기수 강신유 김종한 황의종
- 부위원장 : 원 철
- 회 계 : 박주일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8. 11. 8(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위원장 이종철 목사를 임명하다.
- ② 위원장 이종철목사의 진행으로 서기 이역희목사, 회계 박주일장로, 총무 황석산목사, 부위원장 원철목사, 부서기 성경선 목사, 부회계 김용출장로, 조사위원장 박철수목사, 연구위원장 홍재덕 목사를 선출하다.
- ③ 사업계획은 일정을 조정하여 다음회의에서 나누기로 하다.
- ④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보내 온 강덕섭 목사 이단음해성 조사건은 임원회에 맡겨서 답변서를 보내기로 하다.
- ⑤ 총회로부터 수입받은 103회기 현의안에 대하여는 차기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⑥ 다음회의는 11월 14일(수) 오전10시 임원회, 10:30 전체회의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8. 11. 14(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11월 8일 회의중 결의사항 ① '위원장 이종철 목사를 임명하다'를 '이대위원장으로 이종철 목사를 선출하다'로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③ 사업계획 일정을 총무 황석산 목사로부터 보고 받다. 일정중 12월 13(목)~14일(금) 이대위 세미나를 갖기로 하다. (장소:설악산 켄싱턴리조트, 변경가능)
- ④ 사업계획중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해당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다.
- ⑤ 기독교대한감리회 강덕섭목사 이단음해성에 대한 답변 건은 공문 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다.
- ⑥ 103회기 사업계획건은 총무 황석산 목사의 문서대로 받기로 하다.
- ⑦ 103회기 총회결의사항 수입안건에 대해서는 정동수 목사는 5월까지 지켜보기로하고 전태식, 최바울은 연구, 조사하며 김노아는 신학공부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한 실시여부를 지켜보기로 하다.
- ⑧ 총회결의사항 수입안건 127번은 조사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127번을 제외한 124번~131번은 조사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함께 연구토록 하며 기간은 3달 기한을 주기로 하며 연구와 관련하여 현의안을 제출한 노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다.
- ⑨ 조사위원과 연구위원을 조직하고 그 대표성을 부위원장 원철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며 조사위원회와 연구위원회 경비를 각각 200만원씩 책정하기로 하다
 조사분과위원장 : 박철수목사, 위원 : 성경선, 김용출, 박요한
 연구분과위원장 : 홍재덕목사, 위원 : 심옥섭, 김재관
- ⑩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이단대책위원회 지도교수를 1명씩 추천받기로 하다.
- ⑪ 이대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로 하다.

(3) 제3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9. 1. 8(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제103회기 총회수입안건은 분과별로 분담하였으므로 차기회의에서 자세한 보고를 받기로 하다.
- ③ 103회기 수입안건은 분과별로 조사분과위원장 박철수목사, 연구분과위원장 홍재덕 목사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고 연구분과위원회에 김대훈 목사를 추가하기로 하다.
- ④ 이단세미나(1/17, 나눔의교회)건은 먼저 광고하고 구체적인 소집, 동원 방법을 총무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⑤ 이단세미나(1/17, 나눔의교회) 홍보하기로 하고 총무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⑥ 이단방지를 위한 스티커를 제작하며 각 교회에 배포하기로 하다.
- ⑦ 차기임원회는 1월 17일 나눔의교회에서 11시에 갖기로 하고 분과별모임은 10:30에 갖기로 하다.

(4) 제4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9. 5. 16(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평택중앙교회 및 교단마크 사칭의 건 및 교단마크 도용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이관하기로 하다.
- ③ 미주세이언 건은 조사분과에서 조사하여 대응하기로 하다.
- ④ 소환요청에 불응한 노성태씨에게는 소환에 불응한 관계로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한 자료대

로 진행키로 하였음을 공문으로 통지하기로 하다.

⑤ 소환자 질의시간을 갖다.

11시 김용의 선교사, 12시 유석근 목사, 15시 김요한 대표

(5) 제5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9. 5. 16(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② 103회기 이대위 접수내용을 검토하고 전체에 대한 정리를 서기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③ 8월 2일(금) 오전 10시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종합정리하기로 하다.

2) 분과위원회의

(1) 제1차 분과위원회의

㉮ 일 시 : 2019. 1. 11(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제103회기 총회수입된 노회헌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배정하다.

연구분과 124번, 130번, 131번

조사분과 125번, 127번, 128번, 129번

② 지도교수는 연구분과는 정승원, 김지호 교수, 조사분과는 이병일, 김용준 교수가 담당키로 하다.

③ 지도교수는 3월 31일까지 보고하고 내용은 A4용지 15페이지 내용으로 요약은 2~3페이지로 제출키로 하다.

(2) 제2차 분과위원회의

㉮ 일 시 : 2019. 2. 20(화) 12:00

㉮ 장 소 : 서울가든호텔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② 캄보디아 이단대책세미나건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협조전을 발송하여 세미나를 진행키로 하고 일시는 5월20(월) ~ 22일(수)로 정하고 현지 장소와 규모는 이증재 선교사와 조율하기로 하다.

③ 추후 이단세미나 강사는 별지에 기록된 데로 진행키로 하다.

④ 유성도 목사를 인천이단상담소장으로 위촉하기로 하다.

⑤ 미주세미나 일시와 장소, 참석인원을 별지대로 진행키로 하다.

(3) 제3차 분과위원회의

㉮ 일 시 : 2019. 3. 8(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연구분과 김용준 교수의 사임으로 해당 대학교에 교수를 교체 요청하고 해당 교수에게 연구과제를 다시 의뢰하기로 하다.
- ③ 연구분과 이병일교수는 개인사정으로 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4월말까지 기간을 추가로 주어 연구 의뢰하기로 하다.
- ④ 김지호교수가 정리한 안건 125, 128, 129번의 현의사항을 검토하고 임원회에 보고하여 추후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로 하다.

(4) 제4차 분과위원회의

☞ 일 시 : 2019. 4. 18(목) 11:00

☞ 장 소 : 춘천온누리교회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평택중앙교회 교단마크 사칭에 대한 대응은 신현욱 목사와 함께 의논후 결정하기로 하다.
- ③ 103회기 수임안건과 관련하여 각 대상자를 소환하여 질의하기로 하고 5월 16일 124번-10시, 125번-11시, 128번 1시, 129번-2시, 130번-3시, 131-4시, 장소는 4층 총회임원실 및 회의실로 소집하기로 하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건에 대한 질의서를 교수들에게 10문항 내외로 5월 8일까지 요청하기로 하고 5월 9일 문항점검을 위한 분과회의를 가지기로 하다.
- ④ 미주세이언 건을 연구, 조사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다. (기독신문 추후 광고하기로 하다.)
- ⑤ 이단대책위원회 예산안을 15,000,000원 추경하기로 하다.

(5) 제5차 분과위원회의

☞ 일 시 : 2019. 6. 7(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소환대상중 정동수목사(사랑침례교회), 유석근목사(알이랑교회), 최바울선교사(인터콥) 출석함을 보고하다.
- ③ 전태식목사, 김노아목사, 김형민 목사는 불응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음을 보고받다.
- ④ 질의응답
 - 11:30 정동수목사(사랑침례교회) 질의응답하다.
 - 12:45 유석근목사(알이랑교회) 질의응답하다
 - 각서를 받고 기독신문에 게재할 원고를 받기로 하다.
 - 13:45 최바울선교사(인터콥) 질의응답하다.
- ⑤ 차기회의는 6월 19일(수) 포항큰숲교회에서 가지기로 하다. 전태식, 김형민을 차기회의에 재소환하기로 하다

(6) 제6차 분과위원회의

☞ 일 시 : 2019. 6. 19(수)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김형민 목사는 원철목사, 박철수 목사가 질의하기로 하다.

- ② 전태식 목사는 김지호교수, 이역희 목사가 질의하기로 하다.
- ③ 11시에 김형민 목사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다.
- ④ 12시에 전태식 목사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다.

3)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11. 14(수)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11월 8일 회의중 결의사항 ① ‘위원장 이종철 목사를 임명하다’를 ‘이대위원장으로 이종철 목사를 선출하다’로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② 사업계획 일정을 총무 황석산 목사로부터 보고 받다. 일정중 12월 13(목)~14일(금) 이대위 세미나를 갖기로 하다. (장소:설악산 켄싱턴리조트, 변경가능)
- ③ 사업계획중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해당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다.
- ④ 기독교대한감리회 강덕섭목사 이단음해성에 대한 답변 건은 공문 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다.
- ⑤ 103회기 사업계획건은 총무 황석산 목사의 문서대로 받기로 하다.
- ⑥ 103회기 총회결의사항 수입안전에 대해서는 정동수 목사는 5월까지 지켜보기로 하고 전태식, 최바울은 연구, 조사하며 김노아는 신학공부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한 실시여부를 지켜보기로 하다. 그 외 나머지 안건은 조사분과와 연구분과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⑦ 지도교수 위촉건은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11. 27(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이단대책위원회 자체세미나 준비의 건
 - 가. 외부강사에게 참석을 요청기로 하다(신현욱, 권남궤, 오명현외)
 - 나. 지역상담소장중 선별해서 참석 요청기로 하다.
 - 다. 세미나계획 :
 - 제목 : 제103회기 총회이단(사이비)피해조사대책위원회 세미나
 -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12시~14일(금) <1박2일>
 - 장소 : 나눔의교회 혹은 내아버지집 수양관(충북 옥천)
 - 라. 장소사용을 위해 장소청원공문을 교회에 발송하기로 하다.
 - 마. 세미나를 통해 교단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기로 하다.
- ③ 교단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타교단 및 이단에 대하여 조사 및 신고를 받고 전국교회에 공지하기로 하고 불법적으로 교단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이단교회에는 1차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하고 2차로 반응을 살핀 후 대응하기로 하다. 또한 교단마크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 및 접수건은 기독교신문에 공고하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12. 20(목) 11:00

☞ 장 소 : 나눔의교회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2019 이단대책위원회 지역별 세미나 건중 2월 14일(목)은 춘천온누리교회(김창환 목사)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정은 확인되는 대로 결정하기로 하다.
- ③ 이단대책위원회 지도교수 추천중 칼빈대학교 유창형 목사를 김지호 교수로 교체하기로 하다.
- ④ 이단경계주일 기독교신문 광고 건은 부위원장 원철 목사, 서기 이억희 목사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4) 제4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1. 8(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정리하여 받기로 하다.
- ② 2019 이단대책위원회 조직을 점검하여 지역상담소장은 강사로, 권남래전도사도 강사로 직함을 수정하기로 하다.
- ③ 이단경계주일 및 위장교회 접수 기독교신문 광고 건은 부위원장, 총무, 서기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④ 이단세미나(1/17, 나눔의교회)건은 먼저 광고하고 구체적인 소집, 동원 방법을 총무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⑤ 차기 임원회를 1월 17일 오전 11:30 나눔의 교회에서 갖기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1. 17(목) 11:00

☞ 장 소 : 나눔의교회

☞ 결의사항

- ① 이단대책위원회 조직건은 유인물대로 받되 총신대교수 정승원, 칼빈대교수 김지호 교수는 조사분과로 대신대교수 이병일교수, 광신대교수 김용준교수는 연구분과로 바꾸어 받기로 하다.
- ② 전문위원 서한국목사, 연구위원 김대훈 목사 추가해서 받기로 하다.
- ③ 이단경계주일 및 위장교회 접수 기독교신문 광고건은 부위원장, 서기, 총무에게 맡겨 정리하여 신문사에 넘기기로 하다.
- ④ 미국세미나건은 총무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⑤ 강사 및 예배순서 선정 건은 위원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⑥ 이단경계포스터 및 스티커는 부위원장, 서기, 총무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⑦ 이단경계스티커 제작관련 예산은 총회예산으로 지출 요청하기로 하다.

(6) 제6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2. 14(목) 11:00

☞ 장 소 : 부산초량교회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수입헌의안 중 127번 함경노회 헌의안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③ 총회임원회에서 이단대책위원회에 수입한 이단경계주일 동영상 제작 건은 받고 예산은 총회임원회에 올리기로 하다.
- ④ 구리경찰서 수사협조의뢰 건은 신현옥 목사와 의논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⑤ 캄보디아 이단세미나 요청 건은 총무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 ⑥ 추후 이단세미나시 사용될 강의안제작 논의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⑦ 해외 이단세미나 일정 및 계획건은 총무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7) 제7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3. 5(월) 11:00

㉮ 장 소 : 칼빈대학교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3월 14일 이단대책세미나(새에덴교회) 예배순서는 사회 이억희 목사, 기도 박주일장로, 성경봉독 최찬용, 설교 김종준 부총회장, 환영사 이종철목사, 인사 소강석목사, 광고 황석산 목사, 2부 순서 기도 성경선 목사(1강), 축도 김조목사

(8) 제8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5. 9(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5월 23일 사랑의교회 이단세미나 개회예배 순서는 설교 이승희 총회장, 사회 서기 이억희 목사, 회계 박주일장로, 성경봉독 사회자, 환영사 오정현목사, 특송 김용출장로로 하기로 하고 서울지역 노회들에게 참석을 요청하기로 하다.(강사 권남규, 진용식)
- ③ 5월 16일 103회기 수입안건 관련 대상자 소환에 대하여 점검하고 불참 예정자에게는 재소환 공문을 발송키로 하고 5/16 관련 지도교수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다.
- ④ 5월 23일 오전 9:30 사랑의교회에서 분과위원회의를 가지기로 하다.
- ⑤ 6월 7일(금) 10시 임원회를 가지기로 하고 10:30 전태식, 11:30 정동수, 13:00 김노아, 14:00 최바울을 출석요청키로 하다.
- ⑥ 서평양노회 유성도 목사를 이단상담소장으로 위촉하기로 하다.

3. 주요사업

1) 중부지역 총회이단세미나

- (1) 일 시 : 2019. 1. 17(목) 14:00~16:40
- (2) 장 소 : 나눔의교회
- (3) 참석인원 : 205명
- (4) 일 정 표 :



프로그램	시간	내용
개회예배	2:00~2:30	설교 : 김성곤목사(풍성한교회)
1강	2:30~3:30	'안상홍증인회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진용식목사(이단상담소장)
휴식	3:30~3:40	휴식시간
2강	3:40~4:40	'신천지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신현욱 목사(이단상담소장)

(5) 결 산

수 입		지 출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총회예산	3,578,800	순서비,일비	2,380,000
		인쇄비	550,000
		행사진행비	648,800
합계	3,578,800	합계	3,578,800

2) 부산지역 총회이단세미나

- (1) 일 시 : 2019. 2. 14(목) 13:30~17:10
(2) 장 소 : 부산초량교회
(3) 참석인원 : 103명
(4) 일 정 표

프로그램	시간	내용
개회예배	1:30~2:00	설교 : 부광교회 원로 김창수 목사
1강	2:00~3:00	'안상홍증인회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진용식목사(이단상담소장)
휴식	3:00~3:10	휴식시간
2강	3:10~4:10	'신천지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권남규 전도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장)
3강	4:10~5:10	'제3강 신사도운동' 진용식 목사(이단상담소장)

(5) 결 산

수 입		지 출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총회예산	2,757,500	순서비	1,790,000
		인쇄비	455,500
		행사진행비	512,000
합계	2,757,500	합계	2,757,500

3) 경기지역 총회이단세미나

- (1) 일 시 : 2019. 3. 14(목) 14:00~16:40
- (2) 장 소 : 새에덴교회
- (3) 참석인원 : 188명
- (4) 일 정 표

프로그램	시간	내용
개회예배	2:00~2:30	설교 :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
1강	2:30~3:30	'신천지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권남래 전도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장)
휴식	3:30~3:40	휴식시간
2강	3:30~4:40	'안상홍증인회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진용식목사(이단상담소장)

(5) 결 산

수 입		지 출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총회예산	2,516,400	순서비	1,480,000
		인쇄비	396,400
		행사진행비	640,000
합 계	2,516,400	합 계	2,516,400

4) 강원지역 총회이단세미나

- (1) 일 시 : 2019. 4. 18(목) 14:00~16:40
- (2) 장 소 : 춘천온누리교회
- (3) 참석인원 : 231명
- (4) 일 정 표

프로그램	시간	내용
개회예배	2:00~2:30	설교 : 위원장 이종철 목사
1강	2:30~3:30	안상홍증인회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진용식목사(이단상담소장)
휴식	3:30~3:40	휴식시간
2강	3:30~4:40	신천지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신현욱 목사(이단상담소장)



(5) 결 산

수 입		지 출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총회예산	1,645,000	예배순서비	950,000
		인쇄비	515,000
		행사진행비	180,000
합계	1,645,000	합계	1,645,000

5) 서울지역 총회이단세미나

- (1) 일 시 : 2019. 5. 23(목) 14:00~16:40
 (2) 장 소 : 서울사랑의교회
 (3) 참석인원 : 78명
 (4) 일정표

프로그램	시간	내용
개회예배	2:00~2:30	설교 : 영도교회 정중헌 목사
1강	2:30~3:30	'안상홍증인회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진용식목사(이단상담소장)
휴식	3:30~3:40	휴식시간
2강	3:30~4:40	'신천지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권남궤 전도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장)

(5) 결 산

수 입		지 출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총회예산	2,385,000	순서비	1,490,000
		인쇄비	300,000
		식대	127,000
		행사진행비	468,000
합계	2,385,000	합계	2,385,000

6) 전북지역 총회이단세미나

- (1) 일 시 : 2019. 7. 18(목) 13:30~15:40
 (2) 장 소 : 익산기쁨의교회
 (3) 참석인원 : 325명
 (4) 일정표

프로그램	시간	내용
개회예배	1:30~2:00	설교: 유용상목사(전북신학교 이사장)
1강	2:00~2:30	'안상홍증인회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진용식목사(이단상담소장)
휴식	2:30~2:40	휴식시간
2강	2:40~3:40	'신천지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오명현목사(이단상담소장)

(5) 결 산

수 입		지 출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총회예산	2,256,000	순서비	840,000
		강사비	560,000
		인쇄비	325,000
		행사진행비	531,000
합계	2,256,000	합계	2,256,000



제103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 최종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이단·사이비규정 지침 제3장 이단규정 기준 및 시행세칙 제 7조(이단 규정 기준) 1.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판단해야한다. 한 개인의 판단이나 신학적 견해가 이단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103회기 조사기준:

- 1) 본 교단과 교류하고 있는 타 교단의 교리와 신학적 문제를 이단문제로 다룰 경우, 교단 간의 이단 분쟁이 확산되거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교회의 대 사회적 연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교단의 협조요청을 가능한 한 수용하기로 하였다.
- 2) 연구조사 대상 당사자 교단의 공식 입장과 이단관련조사 결과를 수용하였으나, 개인적으로 변동 없이 계속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와 본 위원회의 출석요청에 불응하여 대치국면에 있는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였다.
- 3)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의 대립으로 올린 현의안이나 분쟁이 있는 교회 상황의 정치적 개입 정황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신중을 기하였고, 성급한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음 회기로 넘겨 전체적인 정황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다.

1. 김형민 목사(빛의자녀교회)

평양제일노회장 조대천목사가 현의한 ‘대학연합교회 김형민목사의 신비적인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이단성 연구조사 현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대학연합교회의 담임 김형민목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젊은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앞으로 미칠 악영향과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연합회의 담임 김형민목사의 신학사상과 가르침에 어떤 위험성이나 이단성이 있는지 연구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현의내용을 적었다. 본 이대위에서는 김형민 목사의 설교분석과 함께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았으며, 김형민목사를 불러 충분한 질의응답을 나누는 바가 있다. 특히 현의안에 적시한 신비적인 ‘설교와 가르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김형민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오순절 신학의 영향을 받았고, 상동감리교회에서 양육을 받아 요한웨슬리를 깊이 존경하여 복음전파자가 되었다’고 했다. ‘설교할 때 절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예배자 중 불신자 전도를 위해 간증 설교를 하는 경우에 감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다. ‘이는 예배자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를 하다 보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며 개성적 설교로 치우친 것 같다.’는 설명을 했다. 김형민목사는 「앞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철저하게 신학적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단어 선택으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 제가 겸손하지 못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설교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을 인정하며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고백을 보내왔다. 2019.07.11.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에서는 김형민목사에 대하여 「... 귀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 양 교단이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하는 기회로 삼아지기를 바랍니다. 본 교단에서는 귀 교단 등 일부 교단에서 제기한 이단성 문제와 관련하여 ... 김형민목사를 검증하고 있사오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는 협조공문을 보내왔다. 본 이대위에서는 모든 공문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이대위에서는 김형민목사의 신학적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의 협조공문을 수

용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고 본 건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로 돌려보내어 교단의 진행 중인 검토와 검증의 시간을 주기로 하였으며, 다음 회기에 재론하기로 하다.

2. 전태식 목사(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제101회, 102회 총회 수입사항 연구 보고 중 ‘진주노회장 박용사씨가 현의한 전태식목사의 신학 사상 재검토 및 본 교단 목회자와의 성도들과 교류에 대한 총회의 입장 및 지도의 건’에 대하여 제 90회 총회 전태식목사에 대한 결의사항을 보면 「1) 알미니안주의 구원론 :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나,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상실한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마지막 때 부활한다.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마귀에 속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에 붙은 사람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부활하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한다. 또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상실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주장하는 예배론을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 교단 이대위에서 결론은 「... 전태식목사의 구원관은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 입장으로서 칼빈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노선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 교회가 아닌 곳에서의 예배를 일체 부정하며, 세상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그의 예배관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므로 전태식목사의 신학과 사상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며 이단과 사이비성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우리 교단이 수용할 수 없는 구원관과 예배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 교단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전태식목사의 강의, 집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2019. 6.13.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대표회장 이영훈목사) 공문(문서번호: 기하성 제68차-012호)를 통하여 「귀 총회는 2005년 90회 총회에서 본 교단에 속한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목사에 대해 <참여금지>를 결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교단은 귀 총회에 공문을 보내 본 교단 소속 전태식목사에 대한 오해와 우려에 대한 신학적 부분을 본 교단에 일임해 줄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전태식목사도 신학적으로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본 교단 신학위원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지도를 겸허하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태식목사에 대한 참여금지해제 요청의 건’이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교단 103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전태식목사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개인의 소명을 듣기로 하였다. 그리고 본 이대위에서는 모든 공문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교단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다.

3. 강덕섭 목사(파노라마성경)

삼산노회장 장기호목사가 현의한 ‘강덕섭목사 이단성조사의 건,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는 이단성조사의 건’ 현의안 내용 중 「파노라마 성경연구원장인 강덕섭목사(일산 흰돌교회)는 성경을 자신이 연구하였다고 하여 어떤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강덕섭목사는 파노라마 성경 1권을 약 210만원에 판매하는 파렴치한 장사꾼입니다. 지금까지 3000회 이상 세미나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기만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강덕섭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해 주시기를 현의합니다. 2017. 8.24」 라고 지적을 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강덕섭목사의 성경세미나가 이단성이 있다는 일부 장로교 목회자들의 청원에서 비롯된 ‘장로교회 내에서의 이단 심사 건’에 관하여 ... 소속 교단의 조사 요청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결정하였으므로 추 후 본 교단과 관련된 이단시비 사안에 관하여는 먼저 본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7.23.」라고 조사 결과를 보내왔다. 아울러 강덕섭목사 이단음해서 조사건 기독교대한 감리회 감독회장 명의로 보내온 반박문을 통하여 「강덕



섭목사 이단 심사를 본 교단과 상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리회 소속 목회자에게 연락하여 출석과 해명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한국의 부흥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감리회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강덕섭목사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고 근거 없는 음해임을 지적해 왔다. 감리교 목회자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교단과의 협력을 원만하게 되어 지도록 협조 바랍니다. 2018. 8.14.」라고 반박문을 보내왔다. 본 이대위에서는 모든 공문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이대위에서는 강덕섭목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단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소속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로 돌려보내어 처리하기로 하다.

4. 유석근 목사(알이랑교회)

전북노회장 강홍철목사가 현의한 '유석근목사(알이랑코리아 대표, 알이랑교회 목사)의 신학사상과 이단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에 대하여 현의내용을 살펴보면, 유석근목사는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이라는 책을 통하여 「① 한국인은 마지막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감추어 놓으신 천손민족이다. ② 한국의 국화(무궁화)가 영어로는 Rose of Sharon 인데 사론의 장미꽃(국화)으로 삼은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밖에 없으며, ③ 한국인의 성경에 나오는 쎈의 후손, 욱단의 후손이며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이 성경상의 욱단이라 하며, ④ 알이랑은 '알+이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라는 말이며, ⑤ 한국어는 바벨탑 사건 이전의 세계 언어 였으며, ⑥ 한국이 전통문양 삼태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⑦ (창세기10장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에서 '스발'이 최종적으로 '서울'을 예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⑧ 무궁화를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봉황을 새겨 넣은 대통령표장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히 신학적으로 검증 조사하여 신학적 문제와 이단성을 밝혀주시기를 현의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이대위는 신학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 「건전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디모데후서 3장16절)'으로 믿고 신앙(믿을 것)과 본분(행할 것)에 대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 ...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는 알게 모르게 성경적 사고보다 성경이 급하고 비판하고 경계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디모데전서 4장 7절)'를 바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유석근목사의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석근목사는 2019. 6.17. 보내온 성명서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수많은 의인들에게 신학적으로 미숙하고 납득할 수 없는 알이랑 찬송가론을 제기하여 우려와 분노를 일으킨 것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의 지도를 성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며 목양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성명서가 신문지상에 공고되지 않았고 성명서 내용에 있어서 자기 방어와 변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약간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석근목사는 본인이 잘못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앞으로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과 관련하여 강의를 일체 하지 않을 것과 목회에만 전념하기로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기로 하다.

5. 김성로 목사(춘천한마음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101회 총회 용천노회장 김남웅씨가 현의한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목사의 부활구원론과 이중체사의 이단성 판단 및 신학적 규명의 건'에 대하여 연구 조사한 바, 102회기 보고서에 따르면 「김성로목사는 '십자가 복음을 펴야한다는 것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원화 한다'는 신학사상에 대하여 잘못된

시인하는 자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김 목사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으므로 ... 본 교단 성도들은 ... 그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하고, 비성경적인 「부활복음」에 현혹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총회장 박종철목사)는 2018년12월14일 (문서번호 기침총 제108-28호)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목사 재심청원의 건'을 보내왔다. '김성로목사에 대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이단대책위원회의 최종 심의연구 결과'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신학사상을 존중하며 ... 제108차 기침 총회는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목사의 이단시비는 '신학적 해석의 오류'로 인한 것이며, 문제의 부분은 수정, 보완하였기에 이단성이 없음을 결의하여 통보합니다.» 라고 보내왔다.

이와 함께 김성로목사는 본 교단 이대위로 보내온 '신앙고백의 건'을 통하여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합동 측 개혁주의 신앙을 존중하며, 합동 이단대책위원회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귀 교단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는 의도와 과정이 어떠하든지 개혁주의 신학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제공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춘천한마음교회 주일예배 및 여러 집회와 공개적 자리와 매체를 통해 수정 발표하였으며 회개하는 심정을 고백하였습니다. 일부 지적된 성경공부 교재 및 자료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회수하였습니다.» 라고 신앙고백과 자술서를 보내왔다. 이로 볼 때, 본 이대위에서 요구한 '김성로목사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으므로 ...'에 충족되었고 '주일예배 및 여러 집회와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성경공부교재 및 책자 수정과 관련책자를 회수하고 회개하였다.'한 점 또한 충족되었다고 본다. 본 이대위에서는 모든 공문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교단의 교리와 신학 문제를 이단성으로 시비할 경우, 교단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교회의 대 사회적 연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김성로목사의 집회와 매체를 통한 공개적 회개를 수용하여 본 교단에서의 결정을 해제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로 돌려보내기로 하다.

6. 최바울 선교사(인터콥선교회)

제98회기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동대전노회장이 청원한 인터콥의 이단성이 있는지에 대한 건은 인터콥 자료를 GMS에 요청하기로 하다.» 제102회기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전남노회장 윤인웅씨가 현의한 「인터콥에 대한 제98회 총회결의 시행의 건은 제98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제98회 총회보고서의 신학부 최종보고(연구결론)에 의하면 「최바울선교사는 여전히 극단적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견지하고 있다. 최바울선교사는 프리메이슨의 음모론을 근거로 인류문명을 타락한 문명으로 단정 짓는 극단적인 논지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과 평신도들에게 현실도피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 그러므로 본 교단은 최바울선교사와 그가 이끄는 선교단체(인터콥)와는 이후로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산하 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참여한 개인이나 교회는 탈피하여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18. 5.24. 'GMS총회세계선교회의 인터콥에 대한 입장 표명의 건'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선교필드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터콥의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본 단체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제기가 한국선교의 현장을 건강하게 하고, 선교역량의 약화를 방지하며, 변화하는 선교현장의 유효적절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시 한 번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선교현장에서 더 이상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결단이 있기를 축기합니다.» 라고 KWMA에 답신을 보낸바가 있다. 이에 2018. 8.1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에서 보내온 '최바울선교사(인터콥선교회) 재심



사 청원의 건'에서 「인터콥선교회는 <GMS인터콥조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하여 신학문제, 선교지 선교방법, 교회관계 등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개선 노력을 하였습니다. 선교지 선교방법에 대하여, 대형집회 중단 요구에 따라 즉시 중단하였고,... 현장에서 인터콥 장기선교사들이 타 단체 선교사들과 협력하며 관계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등 지적된 문제들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라고 보내왔으며, 103회기 이대위에서는 2019. 6. 7. 최바울선교사를 만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바가 있으나 사실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이대위에서는 모든 공문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최바울(본명 최한우)선교사의 개선노력에 많은 힘을 기울인 만큼에 비하여 인터콥에 대한 이단 조사관련 현의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현지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과의 선교 방식 방식으로 인한 마찰 보고가 접수되고 있는 현실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현재의 본 교단 결의를 유지하기로 하다.

7. 노성태(나실인성경원, 수맥봉, 다우징로드)

경기남1노회장 노두진목사가 현의한 '나실인성경원의 이단성(사이비)을 본 교단 신학적입장 조사 청원의 건'에서 「1)수맥봉으로 암 진단과 처방한다는 나실인성경원, 2) 나실인성경원 노성태씨의 비성경적인 행태들, 3) 다우징로드-귀신탐지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등등」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노성태 그는 누구인가?' 부터 조사했다. 「노성태는 2019년 현재 78세다. 그는 부산에서 피난시절을 보내고, 사명감에 불타 '중국선교신학원'을 졸업한 뒤, 평신도선교사로 자원해 중국과 몽골선교에 헌신했다. 노성태씨는 본인을 소개하기를 '1980년 방언을 받고는 중국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며, 1997년 '중국선교사훈련원'을 졸업했으며, 2009년부터 '암'분자 이론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2010년 경기도 평택에 나실인성경원을 설립했다'고 한다.」라고 정리했다. 특히 노성태씨의 '다우징로드-귀신탐지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과학적 용어로는 고주파(Radioesthesia)라고 불리며, 펜듈럼(Pendulum)이나 로드(Rod) 등을 사용하여 수맥 찾기,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람, 심지어는 미래 예지까지 하는 전체를 말한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103회기 연구조사보고서에서는 「건전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디모데후서 3장16절)으로 믿고 신앙(믿을 것)과 본분(행위, 행할 것)에 대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배격하거나 훼손시키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를 거부하고,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도록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런데 노성태(나실인성경원)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맥봉으로 '암'을 진단하고 치료제 '비파고(秘波膏)'를 처방해 주는 것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성경적인 측면에서 위험한 발상이며, 신학적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노성태의 신학적 논란의 핵심과 독특성은 1. '노성태씨는 수맥봉으로 암 진단과 처방을 한다'고 주장한다. 2. 노성태씨의 비성경적인 행태들의 주장들 가운데 '성경에서 늦뎀을 쳐다본 즉 살았더라는 의미는 구리의 화학원소(CU)의 작용과 관계있다. 3. 노성태씨는 '다우징로드, 귀신탐지용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나실인성경원' 노성태씨의 가르침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성경적이고 반 신학적이며, 샤머니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라고 정리하였다. 더 멀리 보면 대체의학과 접목된 기형적인 성경접목이라고 보여 진다. 이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조사해보아야 할 필요가 요구된다. 노태성선교사는 한성노회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나실 2018-08-01호)에서 나실인성경원을 세우게 된 목적을 밝혔는데 「나실인성경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엡 4:13, 갈 4:19, 롬 8:29)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 하게 함(마28:20, 행20:24)」이라고 했다.

본 이대위 조사에 의하면 그의 활동은 목적과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연구와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들과 관련하여 아직 본 교단 교회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공식적으로 여럿 접수되지 않았고, 신중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노성태선교사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위험성을 주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기로 하다.

8.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한동노회장 함동수씨와 삼산노회장 이봉철씨와 서진주노회장 정현섭씨와 경기중부노회장 최광섭씨가 현의하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목사의 비성경 비신학적행위 및 이단성 여부 조사의 건과 남중노회장 고광종목사가 현의한 '정동수목사의 이단성조사'에 대하여 102회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동수는 본 위원회가 지적하는 이단성이 있으나 수정하겠다고 하여 1년간 예의주시 하였으나 여전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까지 축자 번역의 원칙에 따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신실하게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라 여전히 게재하였다. 그러므로 정동수는 이단성이 있으므로 현재(2018. 8.15)까지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참여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단, 위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관련 내용의 책자 등을 폐기하며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인터넷 등에서 삭제가 확인될 때까지, 2019년 5월31일 까지 예의주시하고 재론하기로 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동수목사의 신학적 논란의 핵심과 독특성을 중심으로 보면 「1)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에 대한 이견(異見)으로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한다. 2) 이를 주장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대부분이 공인본처럼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성경을 측근들과 함께 비하시키되 구원이 없는 성경, 불완전한 성경, 사탄이 변개한 성경, 연구할수록 이단에 빠질 성경 등으로 폄하한다. 3)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참된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없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는 등 4)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비성경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장로교가 그 잘못된 토대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이대위에서는 2019. 6. 7. 정동수목사를 불러 '본 이대위에서 요청한 내용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와 수정하였는지와 본인의 주장에 대하여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였다. 정동수목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노선을 부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약속을 했다. 미흡한 부분이나 지나친 부분에 대하여 본 교단이 지도해주는 대로 따를 것임을 고백했다. 본 이대위에서는 모든 공문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이대위에서는 103회기, 2019년 5월31일까지 본 교단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한 대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인터넷 상의 지적사항을 수정하였으므로, 본 교단에서의 결정을 해제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로 돌려보내기로 하다.

9.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경기노회장 원용식씨와 남중노회장 고광종씨가 현의한 '미주 세이연과 이인규씨 이단성 조사 및 이단성이 있는지 조사의 건'에서 「1. 미주 세이연 이단성 조사청원: 미주 세이연(회장: 김순관) 박형택, 이인규, 한선희, 조남민, 김성한, 이태경, 서인실, 백남선, 이종명 등은 예수님의 자존성(여호와)을 부인하고, 성령의 여호와 되심을 부인하는 성부 유일신론 및 반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 교단 목회자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조사하여 이단성이 발견



되면 전 교회에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인규씨 이단성 조사청원: 이인규(감리교권사)씨는 특별계시가 계속된다는 주장으로 2017년 본 교단 102회 총회에서 '교류금지'로 결의된 자입니다. 4개 교단에서 이단성을 조사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자존성(여호와)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호와 되심을 부인하는 이인규를 조사하여 이단성이 있다면 전국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교단 102회 이단대책위원회 총회보고서는 「이인규씨는 감리교 권사로서 사업을 하다가 이단연구를 하면서 이단 연구가가 되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 이단연구가'라고 할 수 있다. 이인규씨의 사상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오늘날도 특별계시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복음을 이원화하며, 셋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redemption)을 이루셨다고 하며, 넷째는 하늘성소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실제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 다시 피를 뿌렸다는 것이다.» 본 교단의 연구 결론으로 「이인규씨는 평신도로서 이단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훌륭한 점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본 교단 성도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고 이단성이 있는 이인규씨의 이단 연구 결과물에 의지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며,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그의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카페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과 철저히 교류 금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이인규씨는 본 교단 목사에 대한 이단성 공격을 일삼아 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103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이인규와 같은 입장에 있는 세이연에 대하여,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이연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등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과 철저히 교류를 금지하기로 하다.

10. 김요한(새물결플러스, 지령이기도)

평양제일노회장 조덕천목사가 현의한 '새물결플러스출판사 김요한 대표의 저서 <지령이의 기도> 내용에 대한 이단성 연구조사 청원의 건'에 대한 현의내용은 「김요한씨의 책 <지령이의 기도>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경건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특이하고 우려스러운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현재 크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요한씨가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총신대학과 신학대학원 출신이고, 예장 합동에서 안수 받았고, 개혁주의 신앙을 전파한다고 알려진 새물결플러스출판사의 대표이므로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이후에 발생할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므로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김요한씨의 특이한 불성령 체험, 2. 다가가기만 해도 신자들에게서 방언이 나옴, 3. 태중의 성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4. 영혼의 몸과 몸의 분리(유체이탈), .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이대위에서는 김요한씨의 신학사상에 대하여 연구 조사하였다. 「김요한씨의 <지령이의 기도>에 대하여 김요한씨 자신은 '이 책은 한편으로 지나치게 신학적이거나 사변적인 형태를 띠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경박하거나 통속적이지 않도록, 신학과 체험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신경을 써가며 집필했다」고 자평했다. 본 103회 이대위에서는 연구조사 결과를 통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했다. 「새물결플러스출판사 대표 김요한씨의 사상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편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그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체험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그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중요 교리에 대한 것이다. 먼저, 김요한씨는 <지령이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을 은사지속주의자, 그것도 강력한 '은사지속론자'라고 소개한다. 따라서 그는 예언, 방언통변, 환상, 신유 등의 은사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말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은사들을 다시 신자들로 하

여금 더 깊은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하여 전학도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의 체험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1)은 예언을 포함한 계시의 종말을 말한다. 김요한도 계시의 종말은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언의 지속성은 주장하면서 단지 오늘날 예언에는 계시적 성격이 없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요한씨가 분명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결론적으로 김요한씨가 <지령이의 기도> '프롤로그'에서 자신의 '성령의 불체험을 간증 형태로 서술하였고, 또한 자신의 체험은 개인적 차원이며 그로 인한 신학적 논쟁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본 이대위에서는 이에 대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기로 하다.

11.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전북노회장 강철홍씨가 현의한 '복음학교(순회선교단) 김용의선교사의 신학사상과 이단성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건'에 대한 현의 내용은 「1) 순회선교단과 복음학교를 이끌고 있는 김용의선교사에 대한 신학사상과 이단성에 대한 조사가 '2016년 9월 총회 합신 신학부와 이대위'에서 '이단으로 사료 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2) 한국교회의 무소유의 삶, 100%의 헌신 등의 삶을 외치며 기존교회에는 복음이 없으며 체험위주의 신앙을 주장함으로 성경과는 다른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우리 교단의 신학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3) 신학적 검증을 통해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여 우리 교단의 성도들 특히 젊은이와 열심 있는 자들이 김용의선교사의 책과 설교에 매료되어 '기성교회와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목회자가 교정해 주려면 목사를 더 이상한 눈으로 보기에 교단적인 입장에서 정리가 필요하여 현의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103회 이대위에서는 김용의선교사를 출석하게 해서 그의 신학과 현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다. 김용의선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서 구원론에 대하여, 영적 도해사상에 대하여, 중보학교에 대하여, 신사도운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왜곡된 성경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왜곡된 타락론과 죄론에 대하여, 완전성화론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김용의는 자신에 대하여 '신학공부를 하지 않았다. 선교단체나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등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며 변론하기에 많은 시간을 소진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도 못했다. 결론적으로 본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김용의선교사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 회기에 재론하여 다루기로 하다.

12. 타교단 구속사 세미나 참여 건

함경노회장 최윤길 씨가 현의한 타교단 구속사 세미나 및 교재사용금지 청원 건으로 본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된 평강제일교회에서 진행되는 구속사 세미나에 본 교단 목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박윤식의 구속사 시리즈가 교육교재로 사용되어 문제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은 평강제일교회와 담임목사가 진행하는 모든 세미나에 참석과 교재사용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의하다.

13. 기타

기타 현의안으로 평양제일노회 조대천씨가 현의한 '이용규선교사(인도네시아선교사, 전 몽골선교사)의 설교와 가르침의 이단성 연구조사 청원의 건'을 비롯한 본 교단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청원의 건은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회기로 넘겨 재론하기로 하다.